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천안 연수원에서 14기 아띠들, 동반자님들, 감사님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며 헤어진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재회의 날입니다.
울산에서 태풍과 더위를 견디며 즐거운 활동을 마친 양곤 팀!
서로에 대해서도 더욱 알아가며 여러 소중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공기 중 탄소농도를 350ppm 이하로 지키자는 노력인

350ppm 운동!

우리 팀원들이 350ppm 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즐거운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RoomAttì





1) 5층 이하는 계단 이용하기

양곤팀이 머물고 있는 울산 YMCA는 5층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띠들은 **무조건** 계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



앗 그런데 저게 뭐죠 이건의 회장님이 “계단 힘들어 미안미안해~” 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네요!

이럴 땐 우리의 정의의 사도 막내 다영이가 출동!





역시 매가 약입니다.



정신 차린 회장님과 뿌듯한 다영이. 즐거운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네요.
계단 오르기! 체력도 기르고 지구도 살립니다.



2) 텀블러 사용하기

14기 아띠들이 신탄리역에서 모이던 순간부터 시작된 텀블러 사용하기!
양곤 팀은 과연 여전히 텀블러를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늦은 새벽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온 회장님.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걸 보니 텀블러를 안가지고 나온 모양입니다.



앗! 종이컵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스으 하고 나타난 다영이



까울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도록 해요!

그 외에도
양곤팀은

...

카페에서 항상 머그잔 또는 텀블러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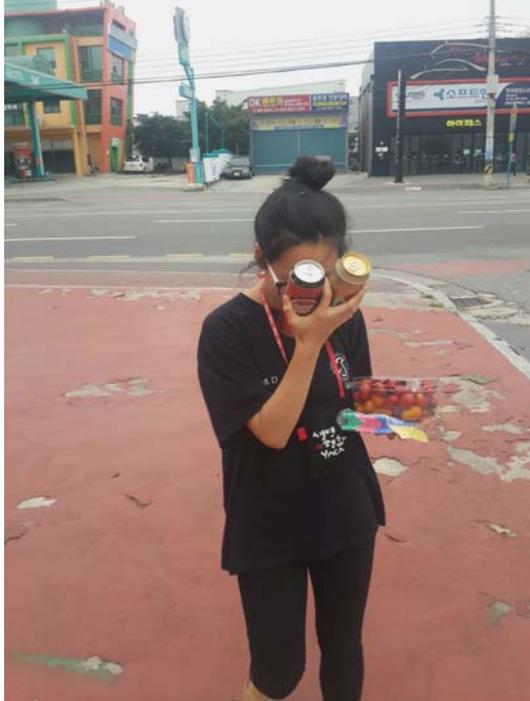
(빨대는 왜 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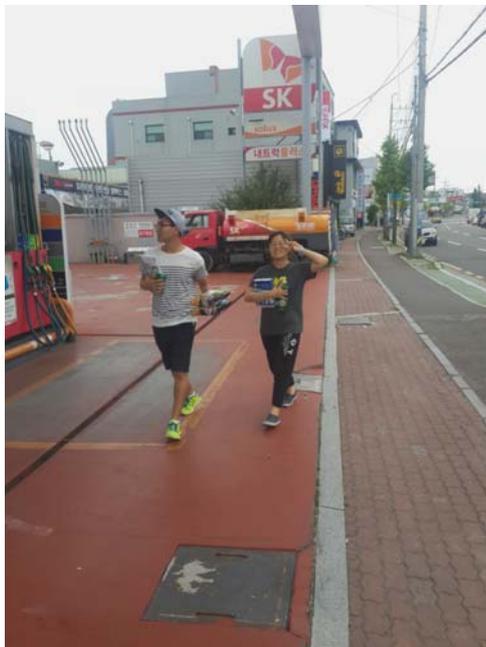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였지만 이날은 장바구니를 안 챙겨서 몸이고생!)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RoomAtti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정말 남기기 싫었던 정의의 사도 다영이는
수박 초록부분을 매우 맛있는 소리와 함께



정상치보다 많이 먹어버리고는



꿈에서도 350ppm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노심초사하며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14기 양곤팀은
350ppm! 스스로와의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다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따~